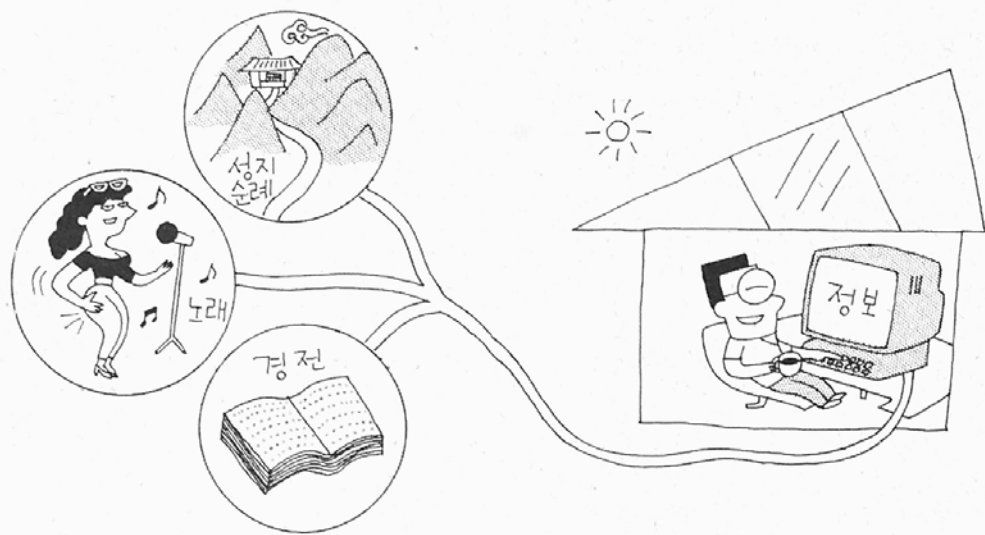


6월은 정보문화의 달 ... 불교전산화 오늘과 내일



초파일 성지순례 화상회의 열어 컴퓨터 불교회원들과 대화

2000년 5월 불자 L씨의 하루

불기 2543년, 그러니까 2000년 5월, 부처님 오신날을 일주일 앞둔 화창한 초여름의 어느 하루.

우리집 너머로 들어온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그동안 관람을 미루어오던 영화 '백두산'을 본 탓에 늦잠을 잤다. 그러나 기분은 상쾌하다. 막 꽃망울을 터트린 장미향이 그윽한 아침 공기를 크게 들이마신다.

간단하게 아침식사를 마친 L씨는 어제 고객으로부터 요청 받은 주문형 자동차에 대한 답신을 보내기 위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았다.

'당신이 원하는 모델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10%의 비용을 더 부담하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Personal Data Assistant)를 부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력하고 고객의 ID번호로 전자메일을 발송한다. 한때 '베베'가 유행했던 것처럼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선물인 PDA이다. 포켓북 크기의 첨단정보통신기기로, 전화는 물론 위성TV수신 패시기능까지 갖춰져 있다.

아울러 고객이 원하는 모델의 자동차를 직접 시승해보고 싶으면 가상시승시스템이 설치된 곳이 서울 시내에 다섯 곳이 있음을 안다. L씨는 새로운 주문내용이 없나 다시 확인한다. 이것으로 그의 오전 업무는 마무리된 셈이다.

이어 L씨는 그가 부회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컴퓨터불교회의 부처님 오신날 성지순례 회의를 주재한다. 다자간 화상회의

장치를 이용하면 된다. 오늘 회의에서는 성지순례 장소와 일정, 법사님들을 결정한다. 우선 후보지로 거론됐던 통도사와 금강산의 마하연, 평양의 광범사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했다. 이 세 곳의 소개는 불교정보센터의 '사찰안내'를 불러오면 된다. 스님에 대한 소개도 마찬가지다.

불교정보센터는 '불교의 모든 것'을 저장하고 있는 불교전문 정보제공회사로 한글대장경을 비롯 불교역사, 인물, 사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회의가 끝날 즈음 L씨와 회원들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회원들의 투표표계가 기록된다. L씨는 곧바로 금강산 마하연의 종무소에 알려 협조를 요청했다.

제나 컴퓨터로만 만나는 것은 아니다. 매일 한차례씩 전국에 있는 회원이 모두는 아니지만 성지순례를 통해 직접 만난다. 1년에 4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회원은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모두 알고 있고, 이 경고를 무시하는 회원은 거의 없어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모든 일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시대가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는 못배길 정도로 여가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때 불교계에서는 정보사회가 되면 '신도없는 사찰'이 될 것이라며 정보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고 있다. 사찰은 컴퓨터로 인해 생긴 사람들 사이의 교미를 해소하는 가

그 단어조차 향수를 자아내게 할 정도이다.

L씨는 영화평론가로도 꽤 유명하다. 점심 이후 잠깐 휴식을 취한 그는 영화프로그램을 검색한다. 이 일은 한국통신에서 제공하는 '신작영화시사회'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된다.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한 영화 '인조인간'을 보기로 결정하고 VDT 리모콘을 찾는다. 영화평론은 매주 발행하는 불교전자잡지 '현대불교'에 연재하고 있다.

VDT(Video Dial Tone)는 이미 5년전에 상용화된 서비스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가지 정보를 전화선을 이용,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주문형 영상서비스'를 말한다.

창밖을 보니 어느덧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만남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모임도 컴퓨터를 통해 만나지만 오늘은 직접 만나기로 했다. 그의 약혼자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컴퓨터 만남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직접 만나기로 했다. 외출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집에 돌아오니 10시가 훨씬 넘었다. 컴퓨터를 열어 외출준비 들어온 통신을 점검하고 내일의 스케줄을 입력시킨다. 그리고 '한글대장경'으로 들어가 스타니파타의 경구를 독송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으로 별들이 흐른다. 벌써 성지순례가 기다려진다. 마하연도 처음 가보는 곳이다. 이번엔 법문을 해주실 영봉스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쉬이 잠이 오지 않는다.

잠들기전 '한글대장경' 프로그램에 들어가 스타니파타 경구를 독송

고, 이것으로 회의를 마쳤다. 회원들도 이 회의에 익숙하다. 벌써 매달 두차례씩 법회를 봉행해온 터이다. 컴퓨터불교회가 컴퓨터법회를 시작한지는 벌써 10년째. 처음에는 모니터에 문자로 올라온 법문을 들는 게 고작이었다. 지금은 질문도 가능하다. 법사님이 직접 답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용어 따위의 질문이 빈번한 내용은 컴퓨터에 입력된 DB(DataBase)로 답변을 들을 수도 있다. 이 시간을 놓쳤을 경우는 예외 불교정보센터의 '오늘의 법회'를 불러오면 된다.

그렇다고 컴퓨터불교회가 언

장 좋은 장소로 떠올랐다. 여전히 고색창연하고 동경과 동경소리가 깃든 사찰은 중생들의 정신적 귀의처다. 사찰에 가지 않고도 컴퓨터에 연결된 와이드스크린으로 순례를 할 수도 있다.

점심시간 전 L씨는 회사컴퓨터에 들어가 과장의 지시를 확인하고 동료들의 인부를 묻고 메모를 주고받는다. L씨가 근무하는 곳은 미래자동차 전문 영업소. 50여명의 직원이 있지만 매일 출근하는 사람은 매달 담당직원 두사람 뿐이다. 재택근무가 본격화된 것이다. 따라서 불과 5년전에 아우성쳤던 서울 시내의 교통 공해문제는

정성은 기자

국내 컴퓨터 보급 40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고교에서도 정보화 시대에 맞는 불교정보 DB 작업이 한창이다.

현재 구축된 불교관련 DB는 '한국불교역사인물' 등 10여종. 이 가운데 불교방송 불교정보연구소(소장 이정)가 7개의 불교자료DB를 선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사찰총람)에

도서목록)도 불교정보연구소가 제작한 불교정보DB이다. 한편 금년말까지 <한글대장경> <한국불교총람> CD를 일반에게 선보이기 위해 제작중이다. 해인사 장경연구소(소장 종림)에서도 팔만대장경 CD를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93년부터 불교경전 논문 등 화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해오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승가대학 전산원(실장 김응철)에서도 지난해 <경전색인일자 검색프로그램>을 완성하고, <태고어록>과 <보조어록>의 DB화를 마쳤다. 올해에는 <원효전서>총32권의 DB화를 착수해서 연말에 선보일 계획인

이같은 불교관련DB 제작과 보급에 대해 승가대학 원교님은 최근 논문을 통해 "전국 사찰에 보급된 컴퓨터는 34%로 이 가운데 신도관리(40.2%)와 문서작성을 위한 워드프로세서(32.4%) 활용이 대부분이다"며 "불교계 전산화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교계 정보시대 열리고 있다

사찰총람·인명록등 10여종 DB화...PC 활용 저조

는 1910년 이전에 지어진 사찰의 위치 소속 연혁 유적 설화 참고문헌이 사전식으로 정리, 수록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8백여개의 사찰정보가 추가될 계획이다. <한국불교역사인물>은 고구려의 아도·순도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2천여명이 시대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현재 활동중인 3천여명의 불교계 인사의 인적사항을 수록한 <불교계인명록>등도 PC 통신을 통해 일반에게 제공되고 있다. 불교가 전래된 이래 한국불교의 모든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한 <한국불교역사정보>와 1945년 이후 출간된 모든 불교문헌을 총정리한 <불교

고 있는 불교전산원 칠엽굴(원장 지철)도 <부처님일대기>와 <아함경>을 CD롬으로 제작중이다. 그림과 상세한 설명 음악으로 구성된 <부처님일대기>는 초심자와 어린이 교육용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아함경>은 주제색인을 작성하여 관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PC통신 천리안과 하이텔의 불교동호회 공개자료실에도 회원들이 제작한 사찰관리프로그램등의 불교관련DB가 공개되고 있다. 또한 고계초회의 전자잡지 <반야>도 PC통신을 통해 제공된다.

불교계의 정보교과와 활용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전산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산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남수미 기자

<불교DB 현황>

제작소	종류	진행상황	제작소	종류	진행상황
불교정보연구소	한국사찰총람 한국불교역사인물 한국불교역사정보 불교계 인명록 불교계 도서목록	8월부터 Hinet-P를 통해 제공	불교전산원 칠엽굴	부처님 일대기 아함경	제작중
한글대장경 한국불교총람	제작중		중앙승가대학 전산원	불교경전일자검색프로그램 태고어록/보조어록 원효전서	완료 제작중 제작중
			해인사장경연구소	팔만대장경	제작중

인터뷰 하이텔-불교동호회 지도법사 대업스님

컴퓨터통신 하이텔의 불교동호회 대화방, 지도법사 대업스님(안성 불자의집 주지)이 이끄는 온라인 '선재불교학습'에 참석하기 위한 회원들의 움직임이 부산한다. 대화방에는 12명만 초창기 때부터. 모두 모이자 불교학습이 시작됐다.

명의 신입회원이 가입합니다. 대부분 불교를 처음 접하고 기초교리를 원하고 있지요. 이들을 위해 불교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대업스님이 이끄는 선재불교학습은 강좌라기보다는 컴퓨터 법회로 불린다. 경전을 통해 강



대업스님은 컴퓨터 통신을 통해 불교강좌, 신행상담을 펼치고 있다.

2천7백여명에 컴퓨터 불교강좌

스님: 안녕들 하세요.
일동: 네, 스님.
스님: 오늘은 <아함경이야기> 두번째강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시작된 불교강좌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시간이 훌쩍 모르고 이어진다. '불교동호회'에는 매일 10여

명의 물론 신행상담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스님이 컴퓨터통신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해 여름. 우연히 불교동호회를 소개받은 스님은 한달만에 초발심자를 위한 '불교상담실' 부사함을 맡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

요즈음에는 하이텔 소식지 '꿈따라' 명예기자로 활약하고

있는 스님은 선재불교학습이 끝나는 9월경 온라인수계식을 갖을 예정이다.

"컴퓨터를 통해 어떻게 수계나 법회를 봉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말(言)을 손(手)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씨와 부호만으로도 충분히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불가나 동경등의 의식도 글씨를 쓰면서 합니다. 처음엔 생소한 지 불라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부분 초심자는 타지속도가 느려 어려움을 느끼지만 일반 법회와는 달리 누구나 질의를 할 수 있어 컴퓨터강좌의 인기가 높은 편이라는 스님의 설명이다. 그래서 2천7백여명의 하이텔 불교동호회 회원의 모니터를 법당삼아 법을 펼치는 대업스님은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다. <염>

불교정보연구소

늘어나는 불교정보처리를 위해 불교방송이 지난해 설립한 불교정보연구소(소장 이정). 최근 불교방송 자료실에 자리한 연구소가 부쩍 바빠졌다. 개소 1년만인 오는 8월1일부터 종교계에서는 최초로 자체 정보유통망 '한국불교정보'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는 정보 가공과 유통의 시대로 정보관리 없이 불교발전이 불가능한 것이 불교정보연구소의 확신.

따라서 연구소 산하에 조사 분석팀을 비롯 정보처리, 전산

개발, 업무지원등 4개 팀 12명의 연구원이 밤낮을 잊고 정보 가공에 주력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그동안 6개의 불교관련

간지의 불교관련 기사 자료는 완벽한 검색기능을 갖추고 있어 불교계에 소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연구소가 이미 개발을 완료한 불교 DB는 PC통신 하이텔과 천리안에 제공, 이용자

구소는 명실상부한 불교정보의 메카로 불리고 있다.

지난해 종교계뿐 아니라 방송계로는 최초로 국가공공 DB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어 화제를 낳기도 했던 불교정보연구소는 앞으로 전국사찰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불교계가 첨단포교에 뒤처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연구소 박규대 상임연구원은 "정보화시대에는 DB등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많이 갖추어졌느냐가 관건이다"며 "재정지원은 물론 어려운 여건속에서 선보인 불교관련 DB를 많이 이용해 질 높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염>

"정보관리없이 불교발전 없다" 연구원 12명 밤낮 잊고 6개DB 개발

DB를 개발하고 최근 2단계사업으로 불교용어사전, 한글대장경, 경전인물사전, 고계법설 서비스등의 DB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90년부터 스크랩한 고계신문, 일

들로부터 매달 1백만원가량의 이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현재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불교관련 도서가 1만5천권, 여기에 그동안 모아놓은 정보가 7만건에 이르러 불교정보연

구원은 "정보화시대에는 DB등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많이 갖추어졌느냐가 관건이다"며 "재정지원은 물론 어려운 여건속에서 선보인 불교관련 DB를 많이 이용해 질 높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염>

모든 사찰에서 마이크 성능을 시험해 볼 기회를 드립니다.

3년 보증

유코전자의 고성능 마이크는 각종 법회 봉행, 설법전용 마이크로, 단 한 개라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하는 예술작품입니다!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작은 음성도 잘 들어가는 흡음력으로 큰스님, 원로스님들께는 꼭 필요한 마이크라고 감히 권해드립니다. '음향연구가 金文華'가 설계한 작품이오니 사용해 보십시오.

전국 사찰의 엠프, 스피커, 마이크 등에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것, 혹은 기술적으로 도움을 원하시면 문의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코전자에서 생산되는 각종 마이크는 '음향연구가 金文華'가 직접 설계한 작품으로, 특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100% 금속막대로 하부 가공해 만들어지는 '음성소재'는, 부드러운에서도 맑고 힘찬 소리를 연출하는 최고급 수준의 마이크로서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독일 및 영국 8개국 수출업체임)

스튜어트 Stuart® 스피커 마이크

YD-707 분리형 스탠드 마이크
YD-707 스탠드 마이크는 1. 설법시 마이크에서 소리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값비싼 외계 마이크로보다 멀리서 잘 들어갑니다.

DX-707 분리형 스탠드 마이크
•공급가: 180,000원

설법 전용 최고급 YD-675 다이내믹 마이크
•공급가: 90,000원

YD-675 마이크는 '베-이'하는 하울링 영향 없이 부드럽고, 맑은 소리로 편안히 사용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마이크입니다.

V-606LC 설법용 고급 마이크
•공급가: 65,000원

V-606LC 마이크는 규도가 작고 좁은 범당에서 '베-이'하는 하울링 영향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마이크입니다.

T-7 경전강조, 설법 각종법회용
•공급가: 45,000원

T-7 핀 마이크는 감도가 매우 높으므로 엠프의 고음과 저음 조절 손잡이를 좌측으로 낮추면 뒤 불꽃을 서서히 올려 스피커로부터 다소 멀리서 사용하십시오.

마이크만을 생산, 수출하는 기업 - 유코전자

본사: 158-091 서울 양천구 신원1동 226-7
TEL: 02) 605-3235, 697-9976, 693-7537 / FAX: 02) 695-9676